

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곽윤경|

중년의 이종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변금선|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이아영|

사회불안 인식의 코호트 간 비교

|구혜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¹⁾

Young Adults' Perceptions of Social Insecurity and Fairness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청년의 사회불안 인식 수준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 공정성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상의 만 19~34세로 한정해서 분석함을 밝힌다. 분석 결과 한국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안 그리고 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사회적 불안의 영역보다 상당히 높았다. 인구 집단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한 차이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이 유달리 높았다.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도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은 않았다. 청년은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이동성 인식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삶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았으나, 공정성 불안이 보통인 집단에서도 삶의 만족도 수준이 적잖이 높게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은 만 19~34

세이다. 청년기의 주요 과업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혹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부모로부터의 주거 및 경제적 독립, 그리고

1) 이 원고는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일부를 수정·보완 및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가족 형성 등을 들 수 있다(최선영 외, 2023).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불안정과 취업 기회 축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 기간을 늘리거나 휴학을 통해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는 등 성인기로의 진입이 점차 유예되고 있다(이현주 외, 2020).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은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청년의 사회적 불안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정서이므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현주 외, 2020, p. 3). 청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은 사회적 불안과 여러 지점에서 관련을 가진다. 비록 청년(15~29세)의 고용률은 2023년 46.5% 포인트로 2019년의 43.5% 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하여 양호한 흐름이지만(통계청, 2024),²⁾ 정작 청년들은 본인의 교육수준과 전문성이 매칭되는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ILO, 2015).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이는 곧 청년의 사회적 불안을 높인다(이현주 외, 2020). 뿐만 아니라 청년의 대학 진학과 취업에 관해 가족의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은 공정성 이슈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키며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청년의 불안은 미래 우리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년의 불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이현주 외, 2020, p. 17). 다시 말하면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이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빈곤이 세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근간에는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정함과 불행이 청년의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깔려 있다”(미스핏츠, 2015; 한승헌 외, 2017, p. 91 재인용)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의 인구구성 면에서도 그 비중이 적어 주요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청년들은 장년층과 달리 부양할 가족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대부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한승헌 외, 2017).

이 글에서는 청년의 사회불안 인식과 공정성 불안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의 사회불안 인식을 인적 속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불평등 영역별 인식, 사회이동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공정성 불안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청년들의 불평등 심각성에

2) “청년 고용동향”, n.d.,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다른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불확실성의 문제는 긍정성 인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윤민재, 임정재, 2023, p. 100). 또한 사회적 불안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과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단일하지는 않았지만(이현주 외, 2019), 청년의 경우 불안과 생활 만족이 어떠한 차원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수행된 조사로, 연도별 집단을 다르게 하여 전국 성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이현주 외, 2023). 2020년도 조사는 만 19~4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총 31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이나 결혼 등과 같은 특화 문항을 포함하

였다(이현주 외, 2023). 2020년 조사 당시 만 19~44세인 청·중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만 19~34세, 1793명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주요 변수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한다. 첫째,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영역별 사회적 불안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지수화된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측정 문항³⁾은 1차 연도 연구인 2019년 연구 결과와 송관재 외(2004)와 한승헌 외(2017)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총 24개의 사회적 불안 최종 문항을 선택하였다. 해당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불안의 5개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 인식으로는 불평등, 사회이동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변수를 활용한다. 불평등 인식은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승진 기회, 소득, 부(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이동성은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변수를 함께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요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3)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측정 문항은 27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모든 개별 문항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4개 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다. 이를 요인분석하여 공정성 불안, 경쟁과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 불안의 5개 영역으로 묶었다(이현주 외, 2020, p. 67-69).

[표 1] 사회불안 관련 변수

| 구분 | 문항 | 내용 | |
|---------------------------------------|--|--------------------------------------|--|
| 사회 불안 | 사회적 불안 |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
| | 공정성 불안 |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 |
| | |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 |
| | |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 |
| | |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하다 | |
| | |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 |
| | 경쟁과 불평등 불안 | 현재의 취업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현재의 취업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
| | |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 |
| | |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 |
| | |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 |
|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 | | |
| 사회적 불안 영역 |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정부 신뢰 불안 | | |
| | 안전 불안 | | |
| 적응과 도태 불안 | 정부의 위험 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 | |
| |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 | |
|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 | |
| |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 | |
| 적응과 도태 불안 |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 | |
| |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 | |
| |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 | |
| 적응과 도태 불안 |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 | |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표 2] 사회불평등 인식 관련 변수

| 구분 | 문항 | 내용 |
|-----------|---|---|
| 사회 불평등 인식 | 불평등 인식 우리 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 기회 불평등 - 취업 기회 불평등 - 승진 기회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부(부동산 등의 재산)의 불평등 | 있다, 없다 |
| | 사회이동성 인식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근로지위 등)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근로지위 등)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없다, 매우 낮다, 약간 낮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
| | 삶의 만족도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집단의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성, 혼인 상태, 연령대, 학력,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부모 교육수준, 부모 재산수준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 응답자 특성

2020년 조사 당시 참여한 청년은 총 1793명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혼인 상태의 경우 유배우자 16.6%이고, 무배우자는 83.4%였다. 연령대는 청년 전기(19~24세)가 33.9%, 청년 중기(25~29세)가 33.5%, 청년 후기(30~34세)가 32.6%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60.7%, 고졸이

38.6%, 중졸 이하가 0.7%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직이 40.6%로 가장 많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5.6%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유는 청년의 생애주기상 학생, 군복무 집단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시 및 일용직도 20.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하층·중하층이 51.4%로 가장 많았고, 중간층 집단이라는 응답은 40.6%로 그 다음이었으며, 본인이 중상층·상층이라는 응답은 8.0%로 가장 적었다. 부모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이라는 응답이 42.4%였다. 부모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무학)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적었다. 부모 재산수준이 하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표 3]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전체 | |
|----------|--------------------|-------|
| | N | % |
| | 사례 수 | 1,793 |
| 성별 | 남성 | 933 |
| | 여성 | 860 |
| 혼인 상태 | 유배우자 | 297 |
| | 무배우자 ¹⁾ | 1496 |
| 연령대 | 청년 전기(19~24세) | 608 |
| | 청년 중기(25~29세) | 601 |
| | 청년 후기(30~34세) | 584 |
| 학력 | 중졸 이하 | 12 |
| | 고졸 | 692 |
| | 대졸 이상 | 1089 |
|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 727 |
| | 임시·일용 | 364 |
| | 고용주·자영업자 | 90 |
| | 무급가족종사자 | 5 |
| | 실업자 | 148 |
| | 비경제활동인구 | 459 |
| | | |
|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 중하층 | 921 |
| | 중간층 | 728 |
| | 중상층 상층 | 144 |
| 부모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152 |
| | 고졸 | 760 |
| | 대졸 이상 | 811 |
| 부모 재산수준 | 하 | 825 |
| | 중 | 727 |
| | 상 | 241 |

주: 1) 혼인 상태에서 무배우자는 별거, 이혼, 미혼을 포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차이로 부모의 재산이 중간 정도라고 답한 응답이 40.6%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재산이 상이라는 응답은 13.4%로 나왔다.

3 청년의 사회불안 인식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표 4>와 같다. 우선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안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은 경쟁·불평등 불안 그리고 공정성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 외 정부 신뢰 불안,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청년 전기에서 중기로, 청년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수록 경쟁·불평등 불안

[표 4] 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 사회불안 ¹⁾ | | | | | | |
|-----------------------|--------------------|------|--------|-------|------|-------|------|
| | 전체 | 공정성 | 경쟁·불평등 | 정부 신뢰 | 안전 | 적응·도태 | |
| 전체 청년 | 3.68 | 3.92 | 4.14 | 3.54 | 3.48 | 3.33 | |
| 청년 분류 | 청년 전기 | 3.63 | 3.81 | 4.06 | 3.55 | 3.45 | 3.28 |
| | 청년 중기 | 3.68 | 3.92 | 4.18 | 3.52 | 3.46 | 3.34 |
| | 청년 후기 | 3.74 | 4.02 | 4.20 | 3.56 | 3.53 | 3.38 |
| 성별 | 남성 | 3.62 | 3.85 | 4.04 | 3.60 | 3.33 | 3.26 |
| | 여성 | 3.76 | 3.99 | 4.26 | 3.49 | 3.64 | 3.41 |
| 혼인 여부 | 유 | 3.76 | 4.04 | 4.24 | 3.59 | 3.56 | 3.35 |
| | 무 | 3.67 | 3.89 | 4.13 | 3.54 | 3.46 | 3.33 |
| 학력 | 중졸 이하 | 3.76 | 4.03 | 3.65 | 3.92 | 3.78 | 3.42 |
| | 고졸 | 3.64 | 3.84 | 4.05 | 3.57 | 3.45 | 3.30 |
| | 대졸 이상 | 3.71 | 3.96 | 4.21 | 3.52 | 3.49 | 3.35 |
|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 3.69 | 3.94 | 4.16 | 3.56 | 3.50 | 3.31 |
| | 임시·일용 | 3.67 | 3.88 | 4.11 | 3.53 | 3.49 | 3.32 |
| | 고용주 자영업자 | 3.63 | 3.88 | 4.10 | 3.43 | 3.49 | 3.28 |
| | 무급가족종사자 | 3.91 | 4.27 | 4.43 | 4.00 | 3.32 | 3.55 |
| | 실업자 | 3.68 | 3.92 | 4.16 | 3.48 | 3.44 | 3.40 |
| 주관적 소득계층 | 비경제활동인구 | 3.69 | 3.91 | 4.15 | 3.57 | 3.45 | 3.37 |
| | 하층 중하층 | 3.79 | 4.08 | 4.25 | 3.58 | 3.55 | 3.47 |
| 부모의 학력 | 중간층 | 3.59 | 3.76 | 4.05 | 3.51 | 3.43 | 3.20 |
| | 중상층 상층 | 3.50 | 3.67 | 3.97 | 3.47 | 3.28 | 3.10 |
| | 중졸 이하 | 3.79 | 4.06 | 4.23 | 3.59 | 3.57 | 3.49 |
| 부모의 재산 | 고졸 | 3.68 | 3.94 | 4.16 | 3.50 | 3.46 | 3.34 |
| | 대졸 이상 | 3.65 | 3.87 | 4.12 | 3.55 | 3.46 | 3.28 |
| | 하 | 3.78 | 4.06 | 4.25 | 3.58 | 3.56 | 3.45 |
| 불평등 심각성 ²⁾ | 중 | 3.60 | 3.81 | 4.06 | 3.52 | 3.41 | 3.22 |
| | 상 | 3.59 | 3.75 | 4.03 | 3.51 | 3.42 | 3.25 |
| | 교육 기회 불평등 | 3.83 | 4.10 | 4.28 | 3.63 | 3.63 | 3.50 |
| | 취업 기회 불평등 | 3.83 | 4.09 | 4.28 | 3.65 | 3.62 | 3.49 |
| | 승진 기회 불평등 | 3.84 | 4.10 | 4.28 | 3.66 | 3.65 | 3.50 |
| 세대 내 이동성 | 소득 불평등 | 3.77 | 4.03 | 4.26 | 3.59 | 3.56 | 3.42 |
| | 재산 불평등 | 3.75 | 4.01 | 4.25 | 3.57 | 3.54 | 3.39 |
| 세대 간 이동성 | 부정 | 3.78 | 4.05 | 4.20 | 3.63 | 3.54 | 3.47 |
| | 긍정 | 3.54 | 3.72 | 4.05 | 3.42 | 3.39 | 3.12 |
| 삶의 만족도 | 부정 | 3.77 | 4.02 | 4.21 | 3.65 | 3.55 | 3.42 |
| | 긍정 | 3.50 | 3.69 | 4.00 | 3.33 | 3.34 | 3.15 |
| 삶의 만족도 | 상 | 3.44 | 3.61 | 3.94 | 3.37 | 3.28 | 3.00 |
| | 중 | 3.63 | 3.86 | 4.06 | 3.49 | 3.47 | 3.29 |
| | 하 | 3.87 | 4.14 | 4.34 | 3.69 | 3.61 | 3.56 |

주: 1) 사회불안 척도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5점)' 등 5점 척도로 구성됨.

2) '우리 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서 '심각하다(4점)'와 '매우 심각하다(5점)'로 답한 이들의 사회불안 수준을 제시함.

출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이현주 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8. 인용 및 저자 분석.

과 공정성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 불안과 적응·도태 불안도 청년의 나이듦에 따라 수준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반면 정부 신뢰 불안은 청년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소폭 감소하지만, 청년 후기로 가는 과정에서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청년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개별 영역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혼인 여부의 경우 유배우자가 무배우자 집단보다 개별 영역 불안이 높았다.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 집단이 공정성 불안, 정부 신뢰 불안,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이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다. 다만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공정성, 경쟁·불평등,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이 높은 반면 상용직에서는 안전 불안이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일관적인 패턴을 보였는데,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중하층인 집단에서 개별 영역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그리고 중졸 이하 집단이 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특히 경쟁·불평등 불안과 공정성 불안이 높았다. 다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의 안전 불안 수준은 같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재산

이 하층인 집단이 부모의 재산이 중간층과 중상층·상층인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대체로 높았다. 특히 공정성 불안에서 집단 차이가 컸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 자체로 청년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불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이현주 외, 2020, p. 97).

불평등 유형별 심각성(표 5)의 경우,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공정성 불안, 경쟁·불평등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승진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개별 영역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경쟁·불평등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공정성 불안과 적응·도태 불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불안

가. 불평등 인식

청년에게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승진 기회, 소득

[표 5]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영역별 불평등 인식

(단위: %)

| 구분 | | 공정성 불안 | | |
|-------|------|--------|------|------|
| | | 하 | 중 | 상 |
| 교육 기회 | 덜 심각 | 29.2 | 14.0 | 8.8 |
| | 보통 | 44.9 | 44.9 | 29.2 |
| | 심각 | 25.9 | 41.2 | 62.1 |
| 취업 기회 | 덜 심각 | 19.0 | 6.6 | 4.8 |
| | 보통 | 48.6 | 40.5 | 20.0 |
| | 심각 | 32.4 | 52.8 | 75.2 |
| 승진 기회 | 덜 심각 | 14.4 | 5.6 | 3.4 |
| | 보통 | 55.6 | 45.5 | 25.3 |
| | 심각 | 30.1 | 48.8 | 71.2 |
| 소득 | 덜 심각 | 13.4 | 3.7 | 1.3 |
| | 보통 | 37.5 | 28.6 | 10.4 |
| | 심각 | 49.1 | 67.8 | 88.3 |
| 부·재산 | 덜 심각 | 9.7 | 5.3 | 1.3 |
| | 보통 | 35.2 | 19.6 | 7.5 |
| | 심각 | 55.1 | 75.1 | 91.2 |

주: 공정성 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 미만 '하', 3.0~3.4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불평등, 부·재산 불평등 영역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청년들은 부(부동산 등의 재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81.3%)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소득 불평등(78.8%), 취업 기회 불평등(64.1%), 승진 기회 불평등(62.2%), 교육 기회 불평등(51.1%) 순이었다.

다음으로 청년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정성 불안과 불평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표 5) 공정성 불안이 '상'인 집단에서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승진 기회, 소득, 부·재산 불평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부·재산 불평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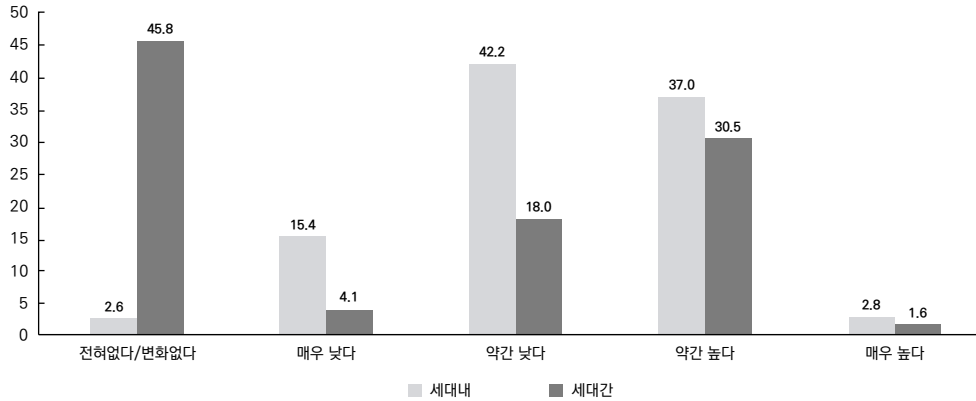
소득 불평등 인식이 다른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다. 특이한 점은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도 영역별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도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나. 사회이동성 인식

사회이동성은 계급, 직업, 소득과 부로 구분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위계 내에서 이뤄지는 이동을 의미한다(정해식, 2020, p. 36). 사회이동성

[그림 1] 사회이동성 전망

(단위: %)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표 6]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사회이동성 인식

(단위: %)

| 구분 | | 공정성 불안 | | |
|---------|-----|--------|------|------|
| | | 하 | 중 | 상 |
| 세대 내 이동 | 부정적 | 42.1 | 48.2 | 66.1 |
| | 긍정적 | 57.9 | 51.8 | 33.9 |
| 세대 간 이동 | 부정적 | 47.7 | 60.5 | 73.2 |
| | 긍정적 | 52.3 | 39.5 | 26.8 |

주: 공정성 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 미만 '하', 3.0~3.4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그 사회 기회의 평등 여부, 즉 한 개인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청년에게 불안을 감지하는 중요한 인식의 측면이다(이현주 외, 2020, p. 99). 사회이동성은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으로 세부 구분할 수 있다. 세대 내 이동성은 개인이 전 생애 걸쳐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근로지위 등)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

는가를 의미하며, 세대 간 이동성은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근로지위 등)가 높아질 가능성을 말한다. 세대 간 이동성의 경우 22.1% 청년 응답자가 부정적이었지만, 긍정적인 응답이 32.1%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세대 간 이동성이 지금과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5.8%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응답도 특이점으로 기록해 둔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은 낮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어 57.6%를 차지하였기에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인 39.8% 보다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사회이동성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청년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의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은 세대 내 이동성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무려 2~3배 높았다.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부정적인 응답과는 5~15%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공정성 불안이 중간인 집단에서는 세대 내 이동이 긍정적인 반면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 삶의 만족도

청년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 본인의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40%)이 만족한다는 응답(23%)보다 훨씬 많았다.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은 37.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의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17.6%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4.4%로 높게 나왔고, 삶에 불만족한다는 집단은 17.6%로 나타났다. 공정성 불안이 중간인 집단에서는 특이하게 삶의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0.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7.6%였다.

[표 7]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 | 공정성 불안 | | |
|--------|-----|--------|------|------|
| | | 하 | 중 | 상 |
| 삶의 만족도 | 불만족 | 17.6 | 27.6 | 46.6 |
| | 보통 | 38.0 | 41.9 | 35.8 |
| | 만족 | 44.4 | 30.6 | 17.6 |

주: 공정성 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 미만 '하', 3.0~3.4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적 불안의 수준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공정성 불안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불평등, 사회이동성 인식,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불안의 영역 중 공정성 불안과 경쟁·불평등 불안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이 응답은 청년 전기보다 중기에서, 청년 중기보다 후기에서 높았다. 정부 신뢰 불안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은 경쟁·불평등 불안이 높은 반면 중졸 이하 집단은 공정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불안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 그리고 재산이 ‘하’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 수준이 높았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승진 기회 불평등이 높은 집단에서 영역별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회 불평등이 높은 집단에서는 공정성 불안과 경쟁·불평등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사회적 불안 수준, 특히 경쟁·불평등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

의 불안 수준이 높는데, 특히 경쟁·불평등 불안과 공정성 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은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보았다. 주목할 점은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도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나온 것이다.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도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정성 불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영역별 사회불안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뿐만 아니라 낮은 집단에서도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불평등 1위는 자산 불평등, 2위는 소득 불평등이 꼽

힌 바 있다(김승연, 박민진, 2021).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 인식이 단지 청년의 삶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가족 형성이라는 중장기적인 이슈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김석호, 2024. 3. 15.). 다양한 생애 과업을 이뤄야 하는 청년들에게 공정 이슈는 더욱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불평등 인식은 생애주기상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 부터 축적된 불공정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에 성장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불공정 경험을 줄이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임윤서, 안윤정, 2022).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불안과 생활 만족도는 양극단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들 간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다(이현주 외, 2019, p. 214). 청년의 사회적 불안의 경우 공정성 불안과 생활 만족도가 일정 정도 관계가 있어 보이나, 공정성 불안이 중간이 집단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음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공정성 불안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현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시행되었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결과에 스며들었음을 연구 결과 해석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정책으로 국민 모두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다. 특히 청년의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시기였다(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시기 이전보다 이들의 불안 수준이 더욱 높아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상회복이 된 이후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는 등의 심층적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석호. (2024. 3. 15.).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 내 격차**.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격차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file:///C:/Users/kihasa/Downloads/%EC%A0%9C4%ED%9A%8C+%ED%95%9C%EA%B5%AD%EC%9D%98+%EC%82%AC%ED%9A%8C%EB%8F%99%ED%96%A5+%ED%8F%AC%EB%9F%BC+%EB%B0%9C%ED%91%9C%EC%9E%90%EB%A3%8C%EC%A7%91.pdf
- 미스핏츠. (2015).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탐사 르포르타주**. 코난북스.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82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윤민재, 임정재. (2023). 한국사회의 공정성 인식과 행복: 세대 간 차별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3)**: 93-118.
-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구혜란, 변금선, 전지현. (202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윤서, 안윤정. (2022). 청년세대의 한국 사회 공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탐구: 개인의 좌절과 공동체적 대안의 경계에서. **사회과학연구 33(3)**: 77-103.
- 정해식. (2020).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제280호**, 34-48.
- 최선영, 이원진, 권영지, 윤태영. (2023).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승현,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 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e-나라지표.(n.d.). 청년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 ILO. (201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5*.

Young Adults' Perceptions of Social Insecurity and Fairness

Kwak, Yoon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paper examines young adults' perceptions of social insecurity, social inequality, and social security about fairness, aiming to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perceptions. For this study, "young adults" are defined as individuals aged 19 to 34,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Youth.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evel of social insecurity among young adults in Korea is quite high. Notably, social insecurity about fairness and social insecurity related to competition and inequality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areas of social insecurity. Differences in levels of social insecurity were also identified across various demographic groups. Furthermore, groups experiencing high levels of social insecurity about fairness also perceived wealth/property inequality and income inequality as particularly severe. Young adults generally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both within and across generations, with especially negative views on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mobility among those with high levels of social insecurity about fairness. While groups with high levels of social insecurity about fairness exhibited significant dissatisfaction with life, it is noteworthy that even groups with moderate levels of insecurity about fairness showed considerabl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alleviating social insecurity among young adults.